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2395.26	코스닥	717.97
	(+14.92)		(+5.08)
금리 (미국 9년)	3.330	환율 (원/달러)	1235.50
	(+0.082)		(+3.40)



관련주가 상승·전방산업 회복세·다운사이클 단축

한파 속 봄 기운 도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 큰 상승
상반기 재고조정 후 회복 예상
스마트폰 출시, 中 봉쇄 해제 등
내년 다시 슈퍼사이클 전망도

반도체 산업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수요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지만 벌써부터 회복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 하반기부터는 예년 수준을 되찾아 내년에는 다시 ‘슈퍼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시는 AMD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폭의 상승을 보였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정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반도체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마이크론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TS

MC도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을 끝내고 나면 빠르게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중희 삼성 전자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실적 악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설 연휴 한 방송에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도체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산업 회복이다. 모처럼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지는 데다가,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IT 부문 수요도 다시 반등할 조짐이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서버 업계는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 반도체 수요 확

대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면서 DDR5 D램 보급이 본격화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사이클’이 대폭 짧아진 것도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 ‘다운 사이클’은 5년에서 3년, 1년으로 대폭 짧아졌다. 수요 전망이 정확해지면서 공급 과잉 가능성도 크게 줄었기 때문.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엔데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견조한 만큼 상반기 재고를 조정하고난 다음에는 완전히 균형을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설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스

‘집권 2년차’ 尹, 국정동력 관건은 3대 개혁

〈노동·연금·교육〉

최대성과 해외순방 마무리
업무복귀 해 국정구상 집중
거대 야당 협치·소통 과제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스위스 해외순방 성과의 후속조치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집중해 UAE로부터 300억달러(약 37조원)의 투자유치와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100개사의 기업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한 첫 해외순

방에서 1100만달러(약 136억원) 가량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고,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김대환 기자

규제완화에도 거래절벽 여전 급매위주 매매가격 5억 하락

부동산 현장 르포 ① 여의도 일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 현상도 여전하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보니 수 억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시범·한양아파트 신통기획 확정
재건축 오래걸려 문의 많지 않아
고금리에 월세 늘고 전셋값 하락
DSR 규제 등 완화 전환점 필요

지난 18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현지 부동산시장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보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했다.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일부 평형은 2021년 10월 대비 5억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었다. 전셋값도 대부분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결국은 금리인상이 멈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실수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하철 9호선 셋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린 시범아파트는 지난 1971년 12월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단지는 총 24개동, 1584가구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

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한다.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 확정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최고 65층, 25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면서도 “재건축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문의 전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매물은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79㎡가 1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10월 거래가격(20억1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이나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에서 이달 3억1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시범아파트 옆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4월 이후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세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105㎡가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전세가격(6억5000만원) 대비 2억원이나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양아파트를 최고 200m(적정 층수 54층) 이하, 10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한양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통기획 등 재건축 호재까지 겹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이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부담이 줄어 들거나 DSR 규제 등이 완화돼야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kdh@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철수, 탈북민 만나 “지난 5년간 북한 권 회피”
/사진 뉴스스
▲ 박지원, 尹 향해 “무너진 민생경제에 국민 인내 안해… 경제 우선해라”

▲ 美,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수사 인지… 추가 정보 없어”
▲ 윤상현, 김기현 ‘여성 군사기분훈련’에 “젠더 공약 의심”



▲ 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대응 논리 정비 등 대비 ‘총력’
/사진 뉴스스
▲ 연금개혁·필수의료 본격 시행… 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